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진 추가발생 대비 주민 일상복귀 총력

전북자치도-도내 14개 시·군, 후속 조치 나서기로 장마 대비 산사태·저수지 등 안전점검·조치 시행 피해주민 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심리지원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12일 부안 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해 추가 여진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주민들의 안정적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사진 3면>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3일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 유관 기관장들은 긴급 영상 대책회의를 갖고 지진의 추가 발생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6월 마지막 주 간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안전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시된다.”며 “산사태 지역이나 저수지, 각종 건축물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과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장수에 이어 이번엔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우리 전북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 대응을 비롯해 비상 근무 체계 등 매뉴얼을 더욱 상세하게 보완해 놓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진 피해를 당한 해당 주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신속한 시설 복구는 물론 재난 심리 회복지원과 마을 안심 버스 등을 통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심리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지진뿐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심리 회복지원센터 (1670-9512)로 신청하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13일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가 부안군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시설에 대한 장비 활용과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신속 복구·이재민 구호”... 김 지사, 특교세 50억 지원 건의

부안 지진 피해현장 방문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전북자치도가 최근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피해주민 구호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직접 부안군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시설에 대한 장비 활용과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재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진도 V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269건, 문화재 6건, 기타 10건 등

총 285건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전북자치도(13일 오전 7시 기준)에 접수됐다.
이날 부안군 지진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장관은 주택, 공공시설물(상하수도사업소) 등 피해 현장에서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은 부안군 지진 발생 현장에서 “이번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신속한 복구 및 시설물 안전 조치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지사는 지진피해 현장 관계를 격려한 뒤 “12일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17회 발생한 점으로 보아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피해 시설물 점검과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지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등 도민께서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진 발생은 예측할 수 없기에 지진 행동요령을 스스로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진 발생에 따른 행동을 조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지진 추가 발생 대비 학생안전관리 철저”

전북자치도교육청, 국민행동요령 학교 등에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각급 학교와 소속 기관에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는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출구 확보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산 이용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운동장 또는 넓은 공원으로 대피 △라디오 등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 등이 있

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국민행동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숙지하고, 지진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안과 고창, 김제 등 진앙지 인근에서는 피해 현황 조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접근 통제, 학생 대피 등 조치를 취하고, 추가 피해 발생 시에는 전북교육청 상

황관리전담반(jpe119@jbedu.kr)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청 지진 정보 등 예의 주시하며,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등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도 여진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 점검·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지진뿐 아니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홍보 강화·시민 의견 수렴한다

전주시, 11월 착공 목표로... 이해관계자 설명회 홍보영상 제작·SNS 홍보·시민 대토론회 등 통해

전주시가 중심도로인 기린대로를 도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등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더불어 대시민 홍보 및 의견 수렴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현재 설계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설명회 △홍보영상 제작 △SNS를 활용한 홍보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와 1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부터는 ‘전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설계안이 나오기 전과 후, 공사 착공 후의 총 3단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5월까지 주요 버스정류장 14곳에서 57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외에도 각 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노인복지관 등에 찾아가 총 28회(1233명)에 걸쳐 홍보를 진행해왔다.
시는 오는 7월 말에는 기린대로 BRT 사업 설계안에 대한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도내 처음 도입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공사 추진 과정과 도입 초반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자치도 청사 황토누리길 ‘안전’

토양 오염 표본 조사결과 ‘양호’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황토누리길의 안전성이 검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청사 황토 누리길 등 8개소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이하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황토길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 효과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용객 건강 보호 및 휴양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오염도 및 중금속 8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구리 8.1~22.1mg/kg, 납 10.3~18.4mg/kg, 6가 크롬 불검출 등으로 조사해, 학교, 공원 등에 적용되는 가장 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인 구리 150mg/kg, 납 200mg/kg, 6가 크롬 5mg/kg보다 훨씬 낮은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황토길에 대해 시·군 요청 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행정안전부 완주군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와 담례품을 드립니다.

기부한도액
인당 연간 500만 원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담례품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까지

기부 방법 (2023.1.1~)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기부 지역특산물 구입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kakao 채널 완주고향사랑
완주고향사랑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팀 063-290-2391 ~ 2392